



전교를 하는 중입니다. 입교를 원한다면서도 자꾸만 “개종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망설이기만 하니 속에 열불이 납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선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하느님을 이해하도록 애를 쓰거나 믿음을 설득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대를 설득할 방법을 궁리하기보다 주님의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대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아직 ‘약하고 어린’ 영혼이라는 점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매사에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1테살 5,21-22)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교 자세입니다.

일관된 사랑을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귀하고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땅의 고통을 면제 받거나 기적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로 승격되는 엄청난 도약임을 솔직하고 분명히 밝히는 일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늘 겸손과 이해와 배려로 증거되며 평화의 명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끈기와 인내로 간절히 기도하며 더 수고하고 훨씬 더 사랑할 각오로 임한다면 그분께서 선교의 용사로 우뚝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원하시는 그분의 도움에 굳게 의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위대하신 심판자

(시편 75,3-11)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7장 “정의의 하느님”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의 영광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사랑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75편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 75, 3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심판하리라.
- 4 땅이며 그 모든 주민이 뒤흔들려도
내가 세운 그 기둥들은 굳건히 서 있다.
- 5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뿔을 쳐들지 마라.’”

- 6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
- 7 해 뜨는 데서도 해 지는 데서도 아니요
산속 광야에서도 오는 게 아니니.
- 8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자,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 9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 가득한 거품 이는 술이라네.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찌꺼기까지 훑아 마시리라.
- 10 그러나 나는 끝없이 기뻐 춤추며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하리라.
- 11 “내가 악인들의 뿔을 모두 꺾으리니
의인의 뿔은 드높여지리라.”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하느님 앞에서 나를 들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어떻게 하면 내가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녔는데, 하루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기차역으로 몰려와 기다렸고, 시간이 되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 뒤쪽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안이 병병해진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나오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4등 칸이 있어야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몸에 배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마태 23,12)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이는 결국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들어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껏 뽐내며 세상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운명이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7장 “정의의 하느님”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기도와 선교로 하나 되는 소공동체 |

- 여좌동본당 3구역 19반 소공동체장 정복순 아네스 -

여좌동본당은 1965년 중앙동본당에서 신설본당 설립이 추진된 지 13년 만인 1978년 성전건립 기성회가 조직되어 이듬해 1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달 조영희(아나니아) 신부님께서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신 후 성전 기공식을 거행하고, 착공 10개월 만인 1979년 12월 28일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지난 2013년 10월 리모델링을 하여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여좌동본당 소공동체는 3개 구역 16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별로 전입교우 및 냉담자 돌봄, 환우·소년소녀가장 돌보기,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돌봄 및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으며 교우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인근 주택지를 방문하고 선교활동을 해나갑니다.

제가 있는 3구역 19반은 60세에서부터 90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많은 반입니다. 본당에서 마련해주신 승합차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수월하게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도에 열심이신데 여좌동본당 출신 사제가 많은 것은 저희 반 어머니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3구역 19반은 선교활동에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왕 최말임(아가다)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시어머니를 성당으로 인도하셨고, 부군이 다니던 기원

과 한 건물에 거주하던 자매를 영세 받도록 했습니다. 또 2층에 세 들어 살던 가족 세 명이 모두 영세를 받도록 하고 대모를 섰으며, 대녀의 친정어머니가 종부성사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두 명의 자매들과 자주 소통하며 자연스레 예비자 교리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독거노인을 인도하여 영세 받도록 돕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방문하여 돌보아 드렸습니다. 자매님은 지금까지 인도한 열일곱 분 중 해마다 교리 개강일이 되면 찾아가서 공을 들였던 분에게 3년 만에 승낙을 받아 교리반에 인도했을 때가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선교활동은 거창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모범이 되어 저희 반 구성원들은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로 대신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복음화하고, 함께 하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해 나가려는 저희 반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